학문간 장벽 허문 '그린연합전공' 필요

기 고

이효수
영남대 총장

'녹색성장'이 이 시대의 화두다. 기후변화는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인류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면서 북극곰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해 새끼를 잡아먹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상기후를 연출하고 있고, 각국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시달리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는 더 늦기 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세계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도 녹색성장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의 실천적 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다행히 정부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2008년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한 후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예산 규모가 연평균 2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지원 예산 확대에 힘입어 민간투자도 2007년 1조30억원 규모에서 올해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이 분야의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특성과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을 고려하면 국가적 육성 전략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최근 들어 자원 고갈에 의한 화석연료 생산비용 상승과 기술개발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 하락으로 화석연료의 생산비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 각국과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이른바 '그린 레이스(Green race)'에 돌입했다.

우리는 출발은 늦었지만 그린 레이스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치밀하고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저비용 고효율 생산기술의 확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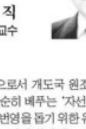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산·학·연·관 연구개발(R&D) 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식 생산과 인재 육성에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국가 및 지역의 산업, 사회, 문화의 세계화와 지식기반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 이니셔티브 유니버시티(GIU)' 육성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과 R&D 분업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기계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물리학 등 전통적인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그린에너지 연합 전공을 통한 '그린 두뇌'를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GIU는 바로 지식경제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와 산·학·연·관 파트너십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학을 거점으로 지식과 인재의 생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식경제 패러다임이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정부가 산업의 밸류체인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다.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시스템까지 국내 일관생산체제를 확립하고, 풍력은 부품은 중소·중견기업이, 시스템 완제품은 대기업이 생산하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산업기반도 탄탄해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강국 노하우 개도국에 전수하자

테마진단



서승직
인하대 교수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합의 중 한국이 주도한 '개발도상국 지원'의 핵심은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개발 경험 전수다. 이명박 대통령은 "17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지원 합의는 지난해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해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take)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give) 나라가 된 한국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많은 개도국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룩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된 경이로운 압축 성장의 노하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별한 부존자원도 없이 원조를 받던 빈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성공신화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직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성공적인 산업화는 '기술과 기능인재'의 땀과 열정으로 이룩한 것이다.

이런 우리의 역량 표출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회원 가입 불과 10년 만에 서유럽의 기능강국을 모두 물리치고 1977년 첫 종합우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6번이나 종합우승하는 등 기능올림픽의 역사를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빈국 탈출의 역사적 업적이야말로 학벌이 아닌 실력이 원동력이 돼 이룩한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

DAC 회원으로서 개도국 원조정책은 잘 사는 나라가 단순히 베푸는 '자선'보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돕기 위한 유익한 원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원조의 선택과 집중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 발전 경험의 원조는 지금 개도국들이 더 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 많은 개발도상 회원국은 기능강국 코리아의 기술 전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메이카 교육부 직업교육 책임자는 당장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의 직업교육의 전수를 갈망하고 있다.

개도국들에 기능강국 노하우의 전수는 부가가치가 큰 원조다. 이는 마치 물고기를 기르고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은 가치 있는 전략이다. 또 우리에게 개도국에 대한 기능강국 노하우의 전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첫째는 우리는 그동안 16번씩이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하면서 모두 482명이 메달을 획득한 기술인력을 보유할 만큼의 인재강국이다. 이들을 통한 세계 무대로의 국력 표출이야말로 수요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의 전략적 투자다.

둘째는 기능경시 풍조와 이공계 기피로 교육의 양극화로 심화된 전문계고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로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 무대는 세계로 넓혀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력보다 학벌이 우선하는 교육정서 타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립직업학교(SENAI) 출신 우주인 마르코스 폰테스 중령은 브라질 기능인의 희망이자 국가브랜드다. 기능올림픽의 각종 포럼 등에서 활동하면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도 기능올림픽의 선도국가로 기능강국의 역량을 개도국을 돕는 원조로 국가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국력 신장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일시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돕는 원조보다는 본질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키는 원조가 국제사회 공동 번영을 위해 더욱 가치 있는 원조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원조의 가치 있는 전략은 기능강국의 노하우 전수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인재 육성을 돕는 것은 개도국의 빈곤 탈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 설

송파지구 알박기 처벌 더 무겁게 하라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건설이 진행 중인 송파 문정지구에서 보상을 노리고 벌통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지난해 말 생활대책 보상자 지정을 신청한 문정지구 양봉·영농업자 1649명 중 현재까지 1631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70%가 넘는 1175명에게 보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1000여 명에 달하는 양봉업자는 단 한 명도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정지구는 개발 소식이 퍼진 2007년 초 23명에 불과하던 양봉업자가 4년 새 1404명으로 60배 이상 불어났다. 벌통 20개를 운영하는 양봉업자를 생활대책 보상자로 분류해 시설물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문정지구 상업용지 16.5㎡(5평)를 감정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도록 한 혜택을 노린 것이다.

문정지구에 벌통 수천 개를 설치하고 일반인에게 20개당 4000만~8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겨 40억원 이상을 챙긴 전문 투기꾼들이 검찰에 적발되고 이들로부터 "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SH공사 전·현직 직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할라치면 으레 기승을 부리는 게 이번 문정지구같이 부당하게 보상을 노리는 알박기다. 비닐하우스나 축사·주택 등 건축물을 급조하고 유실수를 빽빽하게 심는 등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 동탄 등 2기 신도시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런 알박기는 택지조성비용 증가와 집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므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정부는 행정력 부족을 핑계대지 말고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앞서 사업 지구를 정밀 항공 촬영해 주기적으로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하다.

알박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처벌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박기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감당할 벌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문정지구 엉터리 양봉업자들도 보상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중국의 무례와 억지 도를 넘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례와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때는 한국 대통령에게까지 외교적 무례를 범하며 북한을 감싸고돌더니 이번에는 불법 조업 단속을 방해하던 자국 어선의 침몰에 대해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에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용인하는 듯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게 과연 화평굴기(和平崛起)를 표방하는 대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중국인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을 몰아붙이고 나선 것은 목소리와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다.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단속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

우리가 현장 촬영과 레이더 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고 중국의 공동조사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저께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그랬듯이 거친 힘의 외교를 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이용권을 옹호한 발언은 북핵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와 평화적 핵 이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핵 이용을 두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평도에 포연이 가라앉기도 전에 느닷없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중국 정부가 잇달아 헛발질을 하고 있다.

중국이 제국주의시대 함포외교를 떠올리게 하는 힘의 외교를 펴면 지역 안보와 양국 협력관계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균형자로서, 공동번영을 위한 불가분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보다 공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한국을 대해야 할 것이다.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삼가기 바란다.

패터슨 뉴욕 주지사와 이대엽씨의 경우

데이비드 패터슨 미국 뉴욕 주지사가 한 장에 425달러 하는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경기표 5장을 받은 죄로 6만2125달러(약 71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공공 청렴위원회는 2125달러어치 표값의 약 30배를 벌금으로 물린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추구하는지 새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위원회가 밝히고 있듯이 야구 구단은 구장 개발과 부동산·세금 문제 등으로 주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기에 주지사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무료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패터슨의 경우와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사례를 비교하면 한국의 공직자상은 자괴감 때문에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다. 그는 8년 재임기간 15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품을 챙기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무엇이 공직이고 개인적 이익인지 분간조차 못한 타락한 인간이었다. 검찰이 최근 이 전 시장 자택에서 압수한 뇌물을 보면 서민들로서는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

1200만원짜리 50년산 로열살루트 위스키와 150만원짜리 루이13세 코냑, 80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 등은 서민들로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들이다. 뇌물뿐 아니다. 이 전 시장은 친인척과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지자체의 각종 사업과 인사에서 15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이 저지른 것과 같은 부패 행위는 공직사회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마음대로 쓰거나 관공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대는 공직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이 전 시장에겐 패터슨 식의 벌금형이라면 30배인 450억원을 물리고 형사처벌도 병행해야 맞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수위가 일반인에 비해 높아야 함은 기본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공직자가 스스로 이를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 기관의 윤리담당 조직 등의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미국과 같이 사소한 비리도 엄하게 다스리는 사법체계의 준엄함이 요구된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5년 법인
02)948-0561~2

매경이코노미
구독문의
02·2000·2500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명부확정을 위한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2011. 1. 7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1. 1. 7 ~ 2011. 1. 13
201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대표이사 김 희 옥

경매부동산 공동투자
물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2층 제에스 201호 외5건 일괄경매, 전유부문 5,111㎡(1,546)
5천만원 투자시 3개월내 원금, 6개월내 100% 지급
이메일 알려주시면 자료 송부함 010-5713-7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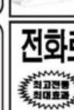
합병경과 보고
201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열엔씨피 대표이사 최 형 석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822-13

해외 커피농장경영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요!
연금처럼 20년간 수익.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odorata2
문의전화: 011-450-4248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문(1차)
당 회사는 2010년 12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 청산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가 됨을 알립니다.
201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강찬건설
서울 마포구 성산동 260-4 금수빌딩
청산인 박 향 배

국제결혼
■ 베트남, 중국, 필리핀, 네팔, 태국, 우즈벡, 러시아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1개월 속성!
02-747-3044 (대)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에듀토피 대표이사 황 성 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수 화

매경출판

지각변동 속의 중국 시장 공략법
2015 중국 대예측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2010년 12월 23일
양주하모니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기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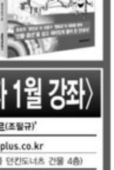
전화로 영어, 일어!
최고전통 최대효과
▶ 미국인과 전화로 생생한 대화연습, 교정, 활용
▶ 전화로 배울수 있는 특수교재사용, 전국어디서나
* www.telesson.net *
(02)2299-4646 TELESSON(텔레슨)

홍성군 공고 제2010-760호
군관리계획 (구항 오봉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2010. 12. 23.
홍 성 군 수

태양열, 풍력, 그린카,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을
공략하라!

KOREA WAY 코리아 웨이 2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을 잡아라
김병기 지음
신국판 328면 | 값 14,000원
매경출판

매경출판
선물옵션 및 FX외환투자
비법 大공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역발상을 통한
멘토르가 알려주는 '부자로 가는 길'!
초보자 '로빈슨'과 전문가 '멘토르'의 대화를 통해
'파생상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안내서!
파생상품 성공투자를 위한 3박자(3M)인
기법(Method), 심법(Mind), 자금관리(Money)를
통한 돈 버는 비법 공개!

로빈슨과 함께 떠나는 재테크 시리즈 ④
돈 버는 FX 외환 투자여행
멘토르(조필규) 지음 | 근간

〈선물옵션 및 FX외환투자 1월 강좌〉
강 사 : (돈 버는 선물옵션 투자여행)의 저자 '멘토르(조필규)'
장 소 : 모임공간 '공간더하기' www.spaceplus.co.kr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20m 버거킹 뒷건물 던킨도너츠 건물 4층)
강 좌 : 선물옵션 실전반 (주2회 화·목 1개월 과정 100만원)
선물옵션 입문반 (주2회 화·목 1개월 과정 80만원)
FX외환투자 실전반 (주2회 월·수 1개월 과정 100만원)
FX외환투자 입문반 (주2회 월·수 1개월 과정 80만원)
선물옵션 및 FX외환투자 공개 강의 12월 28일(화) 오후 7시
개 강 : 1월 3일(월) FX외환투자반 개강(본강좌)
1월 4일(화) 선물옵션 입문 및 실전반 개강(본강좌)
자세한 내용은 cafe.daum.net/robinson77 참조
입금계좌 : 701-103135-13-001 우리은행, 예금주: 매경출판
문 의 : 매경출판 ☎(02)2000-2603